

100% 한국 농산물로 만든 한국산 우수 식품 미국 판매

<Grace Global INC>... 김치, 양념장, 구운 파래돌김 등

그동안 미국에서는 좀처럼 맛볼 수 없었던 한국 식품들의 미국 서부 판매가 시작됐다.

<Grace Global>은 이번에 처음으로 '예소담 김치', '밥도둑 끝판왕', '구운파래돌김' 등을 한국으로부터 들여와 미국 서부 판매를 시작했다. <Grace Global>에 따르면 이들 식품은 모두 한국 현지에서 한국산 재료를 엄선하여 한국의 품질기준인 Haccp 시설에서 가공 생산되고 FDA 시설 등록을 한 제품들이다.

'예소담 김치'는 충북 청주시 미원면 해발 200m 준고랭지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신선한 배추를 절여 풍부한 젓갈을 사용한 특제 소스로 버무린 김치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제6, 7회 김치 품평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치이다.

이번에 미국 서부에 진출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농업회사법인(주) 예소담'의 윤병학 대표는 "2019년 충북 농식품 서부 판촉전에 참가하여 시험 판매를 한 결과 LA, OC 소비자들께서 구매 후 추가 주문을 많이 하셔서 충분한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다." 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계획에 대해 "이제 첫 출발을 시작하였으니 많은 분들께서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품을 출시 예정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김치를 항상 드실



수 있도록 공급을 꾸준히 할 계획이다." 라고 덧붙였다.

매운 장류인 '밥도둑 끝판왕'은 100% 한국산 고추와 들기름을 활용해 양념 소스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특징은 밥, 삼겹살, 라면, 국수 등 모든 한식에 맛있는 매운맛을 더하고 싶을 때 첨가하면 기분 좋은 매운맛을 느끼게 해주는 양념장이다. 제품을 생산한 '농업회사법인(주) 황실' 측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한국의 전통인 매운맛을 느끼고 싶을 때 꼭 필요한 식품이라고 생각되어 출시하게 되었다." 라고 전했다.

'구운 파래돌김'은 한국 진도에서 100% 채취한 파래돌김을 조미료 없이 단순히 굵기만 한 김으로 MSG가 전혀 가미되지 않아 건강식으로 각광을 받는 식품이다. 제품을 생산하는 '메이드 코어' 측은 "이미 한국에서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미국 식탁에도 제대로 된 제품을 올릴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미주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다." 라고 전하였다.

이들 제품을 한국에서 들여와 미주 판매를 시작한 <Grace Global INC> 측은 "이번에 한국에서 수입 판매하는 제품들은 우수한 한국 식품을 미국 한인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했으며, 특히 판매에 들어간 '예소담 김치', '밥도둑 끝판왕', '구운파래돌김'은 2019년 충청북도 우수 농식품 미국 서부 판촉전에 3회 연속 참가했던 제품으로 매회 인기가 가장 좋았던 제품으로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된다." 라며 "2020년 5~6월 중에는 충청북도 청주시 전용 판매점을 개설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예소담 김치'는 LA, OC지역의 경우 1Box를 주문해도 지정장소까지 배달해 준다. 5kg 한 박스는 30달러, 10kg 한 박스는 50달러이다.

현재 각 지역 판매처를 모집하고 있다. 본보 9쪽의 광고를 참고하자.

▶ 구입 및 판매처 모집 문의: (714) 504-4200

미국 출발 모든 한국 입국자 2주 자가 격리

한국 정부(이하 정부)가 지난 27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인을 제외한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 동안 자택이나 시설에 머물도록 했다.

지난 26일 '한겨레'에 따르면 정부가 유럽발 입국자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까지 검역을 강화한 것은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인적 교류가 유럽보다 광범위한 것도 감안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 유학생은 5만4,555명, 유럽은 3만6,539명

이다. 교민 수도 미국이 약 256만 명으로 유럽(69만 명)의 거의 4배이다. 미국과 유럽 교민사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을 돌아가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처럼 미국발 입국자를 전수 진단검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검사 역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4일 한국 입국자는 총 7,624명으로 이 중 미국발 입국자는 2,265명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한국의 하루 검사 가

능 건수는 1만5,000~2만 건이다. 현재 유럽발 입국자 전수 검사와 요양병원 표본조사 등이 하루 1만~1만5,000건에 달한다. 미국발 입국자까지 전수 검사하면 비상시를 대비한 여유분을 충분히 확보하기 힘들다. 중대본은 "위험 순위가 더 높은 표본부터 골라 검사할 수밖에 없다." 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떠나 한국에 입국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내국인은 공항 검역시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증상이 없을 경우 곧바로

자가 격리에 들어간다. 격리 기간에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유럽발 입국자는 무증상이라도 자가 격리 중 검사를 받는다.

정부는 미국 내 코로나19 위험도가 아직은 유럽보다 낮다는 이유를 들었다. 자가 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외교부는 "한미가 사전에 긴밀히 소통했다. 미국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고 설명했다.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Implant \$1700 → \$999	Implant Free Consultation	Exam X-ray Cleaning \$35
Crown \$500 → \$400	잇몸치료 \$600 → \$400	틀니 \$1200 → \$850

KMC Dental Group

Irvine

Tel: (949)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L.A.

Tel: (323)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Hacienda Heights

Tel: (626)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

Dr. Seong Hoon Cho
DDS

**각종 보험
메디케어(PPO) 환영**